

한류로 인한 일본인의 한국인과 재일코리안에 대한 인식 변화

-관서지방을 중심으로-

황 혜 경*

目 次

1. 서론
 2. 한류의 개념 및 일본 내 한류의 현황
 3. 조사방법 및 조사항목
 4. 조사결과 및 분석
 5. 결론
-
-

1. 서론

2003년 일본 NHK방송국에서 한국드라마 겨울연가가 방영된 것이 계기가 되어 일본에서의 한류열풍이 시작되었으며, 드라마는 물론 한국영화, 그리고 배우, 가수들까지 일본에 진출하여 많은 사랑을 받으며 한류열풍에 가담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사회의 한류열풍으로 인해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많은 인식이 변하고 있다. 과거에 한국이 일본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이 한국을 업신여기는 등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저하되어있다. 또한 일본에서 1세기가 넘도록 생활하고 있는 재일코리안들은, 일본에서 취업문제, 주거문제, 결혼문제, 학교 진학문제등의 여러면에서 무시당하고 차별을 받으며 살아왔다. 또한, 한국음식의 마늘냄새와 김치냄새가 싫어서 재일코리안을 차별했

* 남서울대학교 강사 일본학

는지, 재일코리안이 싫어서 한국음식과 마늘냄새를 싫어했는지 단정지어 말할 수 없지만, 이들은 한국음식의 마늘냄새며 김치냄새를 이유로 더욱더 차별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음식들이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그것으로 인해 일본인 가정에서 김치를 담그는 일도 생긴다고 한다. 음식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 영화 등의 엔터테인먼트가 일본에 유입되고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한국문화, 한국인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에서 차별을 받고 재일코리안 입을 숨기고 살아왔던 재일코리안들에게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류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한류 열풍만큼이나 한류에 관련된 연구는 많이 보고되고 있다.

한국 드라마에 관한 연구, 한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연구, 한국 관광, 한류로 인한 문화 관광객 유치, 그것으로 인한 한국 상품 판매 및 소비지출구조에 관한 연구, 한류를 통한 한국 이미지 변화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되고 있다.

일본에서의 한류 붐에 관한 고찰로 일본 한류 열풍 주도인 드라마 겨울연가에 관한 연구가 있다(신원선(2005)). 그리고, 일본에서의 한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연구로 손진원(2004)을 들 수 있다. 손진원에 따르면, 일본에서의 한류는 1990년대 중반이후 영화 쉬리가 소개된 이래, 2003년 겨울 연가는 NHK 위성 방송을 통해 방영된 뒤, 주인공 배용준의 인기로 한류가 자리 잡았다고 한다. 일본에서 한류가 인기 있는 원인으로 음악·드라마·영화를 포함한 한국 대중문화의 우수성을 들었다. 그리고 한류의 전망은 지속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호사카 유지(2005)는 일본에서의 한류 붐에 관해서 앞의 손진원과 같이 한류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앞으로 일본 내 한류 붐을 지속시키기 위해 ‘겨울연가’나 ‘대장금’의 성공요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며, 그것에 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한다.

한류로 인한 한국관광에 관한 연구로 채예병(2006)은 일본 내 한류는 일본인들의 한국 관광 이미지를 형성하는 주요 변수로서 한류노출정도가 한국관광지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 연구했다. 그 이외에, 관광분야에서 한류에 관련된 연구로 한류에 의한 관광지로서의 한국이미지에 대한 연구로 장양례·박정옥(200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또한, 정승훈(2003)은 한류를 이용한 제주 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논했다. 그리고 한류 문화관광객의 소비지출에 관한 연구로 허종욱(2006)을 들 수 있다.

다음은 한류를 통한 한국인 이미지 변화의 양상에 관한 연구로 김준숙·김광태(2005)은 한국에 대한 관심과 동기, 한국 드라마의 이미지, 한국인에 대한 의식과 의식변화, 한국의 언어 행동의 이미지 등에 관하여 조사 분석 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보면 한국 드라마에 대한 열풍으로 한류가 자리를 잡았으며, 그것으로 인한 배우와 드라마 촬영장소가 관심이 많아져, 한국 관광 상품이 증가된다. 또한 한국관광의 증대로 인하여 소비를 창출해 내고 있다. 이러한 현황에 관한 논문과 앞으로의 한류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 어떤 것이 있으며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에 관한 조사 분석이 논문의 주를 이루었다. 또한 한국드라마를 통해서 한국배우를 좋아하고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한국에 호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류를 통한 이미지 변화에 관한 연구도 나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일본사회의 변화 속에서 일본의 한류로 인한 일본인의 한국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거주하는 한국인, 즉 재일코리안에 대한 이미지 인식에 관해서도 고찰하고자 한다. 한류에 관련된 논문은 수없이 많이 나왔지만, 실제로 일본에서 생활하는 재일코리안에 관련된 연구는 거의 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논문은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국인과 재일코리안에 대한 이미지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으로, 실증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한류의 개념 및 일본 내 한류의 현황

(1) 한류의 개념

중국 및 일본, 동남아 지역에서 유행하는 한국 대중문화의 열풍을 일컫는 용어를 한류라 부른다.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한류(韓流)란 중국, 대만,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가수들의 노래, TV드라마, 영화 등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라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한류라는 용어는 1997년 중국에서 TV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와 「별은 내 가슴에」가 인기를 끌면서 조성되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H.O.T의 음반 발매와 더불어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열기로 바뀔 무렵 클론의 공연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앞서 유행했던 일본대중문화의 유행을 일류(日流)라 불렀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한류라는 용어를 만들어 냈다. 다음해 2월에 있던 H.O.T의 공연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자 다른 문화가 매섭게 파고든다는 의미의 한류(寒流)의 동음어인 한류(韓流)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¹⁾

일본에서 한국의 대중문화의 인기를 나타내는 언어는 「아시아 붐」→「한국 붐」→「한류(일본식 발음)」→「한류(한국식 발음)」로 변천되어 왔다. 한류를 키

1) 이은숙(2002), 「중국에서의 한류열풍 고찰」, 문학과 영상학회 PP.31-59.

워드프로 일본 주요 4대 일간지 (아사히, 마이니찌, 요미우리, 산케이 신문)의 신문 기사를 검색한 결과, 2003년에는 11건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2004년에는 762건으로 급증하고 있다.²⁾

한국의 대중문화는 1990년경에 시작한 일본 내 아시아 붐과 맞물려서 일본에 소개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일본 아시아 대중문화의 전문잡지에는 주로 홍콩스타가 등장하고,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기사는 매우 적었다. 이 시기 한국의 대중문화의 능동적인 소비자와 팬의 움직임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90년에 한국과 일본이 월드컵 공동주최국으로 결정된 것에 의해 크게 변했다. 이후 2000년까지는 점점 한국영화를 포함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한국 붐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2003년경부터는 한국 붐이 「한류(일본식 발음)」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해, 2004년경부터는 한국식 발음인 「한류(한국식 발음)」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³⁾

일본에서는 2002년의 월드컵 공동개최 시 한국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아직 한류라는 말은 일본 내에 정착되어 있지 않았다. 일본에서 한류라는 말은 일본의 국영방송 NHK가 방송한 드라마 「겨울연가」를 계기로 2003년 말쯤부터 사용되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일본 내 한류의 현황

일본에서의 한류는 2003년 4월부터 NHK 위성방송을 통해 「겨울연가」가 방영되면서부터 시작 되었다. 1980년대 이후 조용필, 계은숙, 김연자등과 같은 한국 가수의 일본 진출을 통해 한류의 기반이 형성되었으며, 2000년대 초 「쉬리」나 「JSA」와 같은 한국영화의 흥행과 가수 보아의 성공 등을 통해 한류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신드롬까지 일으켰던 겨울연가의 방영을 통해 사실상 한류 열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겨울연가는 2003년 4월에 NHK BS2를 통해 방영되면서 인기를 모으기 시작하여, 방송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의 성원이 계속되었다. 2003년 12월에 10일간에 걸쳐 집중 재방송을 했고, 2004년 4월에는 NHK지상파 방송을 통하여 일본전역에 방송한데 이어, 2004년 12월에는 편집하지 않은 노컷자막판을 BS2에서 10일에 걸쳐 재방송하였다. 이와 같은 방송으로 2004년 지상파 방송 6월부터는 2004년 시청률 TOP10에서 연속적으로 10위안에 들었으며, 최종회에서는 20.6%의 경이로운 시청률로 1위를 차지했다. 겨울연가가 사랑받는 만큼 드라마 속의 한국에 관심이 많아졌으며, 기존의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많

2) 히라타유키에(2005), 『한국을 소비하는 일본: 한류, 여성, 드라마』. 책세상 158p.

3) 주3)과 같은책 pp.26-27.

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배우와 드라마 촬영 장소에 관심이 많아져, 한국 관광 상품이 증가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소비를 창출해 내고 있다. 일본인의 한국 주요 관광코스에는 없었던, 겨울연가의 촬영지인 남이섬 등의 관광 상품 등이 단적인 예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드라마 대장금은 2004년 10월부터 NHK지상파 방송을 통하여 한국의 전통음식, 역사, 의료기술에 대한 일본인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대장금은 시청자에 한국음식문화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일으켜 한국 궁중요리에까지 확산되면서 한국 궁중요리 강좌가 조기 마감되기도 했다. 또한, 장금이 요리법이며, 한국 궁중요리에 관련된 서적들이 많이 출간되어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그리고 일본여행사들의 한류열풍 상품으로 한국 음식 맛보는 코스가 포함된 여행패키지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3 조사방법 및 조사항목

(1) 조사방법 및 대상

이 논문은 일본 관서지방(오사카, 나라지역)의 일본인 312명을 대상으로, 한류로 인한 일본인의 한국인과 재일코리안⁴⁾에 대한 인식에 관하여 양케이트 조사를 실시했다.

나라에서 나라여자대학교와 나라현립대학교를 방문해, 학교식당 등을 이용, 직접 양케이트 설문지를 배부·회수했다. 또한, 나라 아동상담소와 나라 공민회관을 방문해, 그곳에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회수했다.

그리고, 오사카에서 관서대학을 방문해 학생들이 많은 곳을 찾아가 설문지를 배부·회수했다. 그리고 쓰루하시 중학교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양케이트를 실시했으며, 오사카시의 산손지라는 절을 방문해, 그 곳에 방문한 신자들을 대상으로 양케이트를 실시했다. 이외에도 본인이 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다른 몇 명에게도 양케이트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312부를 회수했고, 그 중에서 불성실한 설문지 10부를 제외하고 302부(오사카:123부, 나라:179부)를 유효한 설문지로 확보했다⁵⁾.

4) 재일코리안에 관한 호칭으로서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조선인」, 「재일코리안」 등이 있다. 「재일코리안」은 1980년대 후반이후, 자주 사용되고 있다. 저자는 이 논문에서 「재일코리안」을 사용하기로 한다. 재일코리안의 정의로서는 1910년 이전에 일본에 정주한 한국인으로 그 가족과 자손, 1910년 한일합방조약으로부터 일본이 패전한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에 정주한 한국인과 그 자손들을 말한다.

5) 조사방법으로서는 무작위추출법에 의한 조사가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조사 방법은 2007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양케이트 조사를 실시했고, 인터뷰 조사도 했다.

(2) 조사항목

조사 항목으로는 일본사회의 한류로 인한 관서지방 일본인의 한국인과 재일 코리안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그것에 관련해 크게 4가지로 나뉘었다. 우선, 기본사항 및 한류에 관련된 문항 9항목, 그리고 한국인에 관한 문항 3항목, 재일코리안에 관련된 문항 4항목, 그리고 한국에 관련되어, 역사·정치·식문화에 관련된 문항 7항목, 총 23항목으로 설문지를 각각 한류 이전과 한류 이후로 나누어서 작성했다.

4. 조사 결과 및 분석

(1) 기본사항 및 한류에 관련된 사항

표1의 기본사항 및 한류에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한다. 성별을 보면 남성이 약 20%, 여성이 약 80%로 여성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다.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약 3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대가 약 20%, 나머지 연령층은 10%전후였다. 한국 관심정도를 보면 「조금 관심이 있다」가 약 36%로 가장 많았고, 「매우 관심 있다」가 약 30%로 다음으로 많았다. 한국에 관심을 가진 시점을 보면 한류를 일으킨 「겨울 연가 시청 이후」가 약 38%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2002년 월드컵 이후」와 「기타」가 25.9%로 많았다. 즉, 일본인이 한국에 처음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라고 말할 수 있다. 2002년 한일월드컵 공동주최로 한국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기타 의견으로는 「한국인 친구가 생기고 나서」, 「한국 김이 맛있어서」, 「최근」, 「오래전부터」 등 이었다.

한편,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가 예상보다 적은 10%정도 밖에 못 미쳤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은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지만, 민간외교인 한국 드라마 열풍의 한류에는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한류의 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해 본 결과, 「들어 본 적 있다」가 약 98%로 대부분의 일본인이 인지하고 있었다. 한류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

많다. 이 조사는 표본조사가 아닌 일종의 전형조사로서 이 주제에 관해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다. 현실적으로 개인적인 조사에서 정확한 표본조사는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같은 상황에서 조사를 하기위해서 최대한 노력한 것이다.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해 본 결과, 74%의 일본인들이 「한국 드라마 붐」이라고 생각했다.

한류의 관심정도를 보면 「그다지 관심 없다」가 약 40%로 가장 많았고, 「조금 관심이 있다」가 약 28%로 다음으로 많았다. 그리고 「매우 관심 있다」가 약 16%, 「전혀 관심이 없다」가 15% 순 이었다. 여기에서 「관심 있다」와 「관심 없다」로 나눠서 보면 전자가 약 45%, 후자가 약 55%로 관심 없다가 10% 정도 더 많았다. 한류를 다 인지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한류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한류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한류의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에 관해서 복수응답을 받은 결과, 「한국요리」가 약 5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국 대중문화」가 약 50%로 많았다. 그리고 「한국여행」, 「한국어」가 35%전후로 많았다.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한류라면 드라마 붐이라는 인식이 절대적이지만, 실제로 관심도를 보면 드라마인 대중문화보다 한국요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표1 기본사항 및 한류에 관련된 사항

항목	구분	%	항목	구분	%
1.성별	남성	18.8	6.한류의 의미	한국 드라마 붐	74.0
	여성	81.2		한국 문화 붐	18.0
2.연령	10대	18.8		기타(한국음식 등)	4.8
	20대	35.3		모르겠음	3.1
	30대	7.5	7.한류의 관심정도	매우 관심 있다	15.9
	40대	13.7		조금 관심이 있다	27.9
	50대	13.7		그다지 관심 없다	41.4
	60대이상	11.0		전혀 관심 없다	14.8
3.한국 관심 정도	매우 관심 있다	29.9	8.한류 관심 분야	한국어	[36.1]
	조금 관심이 있다	36.1		한국 요리	[55.6]
	뭐라고 말할 수 없다	16.5		한국 여행	[37.6]
	그다지 관심 없다	13.4		한국 사회	[13.5]
	전혀 관심 없다	4.1		한국 역사	[15.8]
4.한국에 관심 시점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10.1		한국 대중문화	[49.6]
	2002년 월드컵 이후	25.9		한국 전통문화	[27.8]
	겨울 연가 시청 이후	38.1		기타	[0.8]
	기타	25.9	9.한류가 일어난 시점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
5.한류에 대한 인지도	들어 본 적 있다	98.3		2002년 월드컵 이후	2.4
	들어 본 적 없다	1.4		겨울 연가 시청 이후	88.9
				기타	8.7

*[] 복수응답

이번 조사에 응답자들이 한류가 언제부터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점을 조사해 본 결과, 예상대로 「겨울연가 시청 이후」가 약 90%로 대부분이었다. 다시 말해서 한류가 정착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2) 한류와 한국인

한류로 인한 일본인의 한국인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인에 대한 인식」, 「한국인의 친근감 정도」, 「한국인인 이웃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우선, 일본인의 한국인에 대한 관심 변화에 관해서 보기로 한다. 정대균(1995)에 의하면, 제3기로 나눠서 볼 수 있다. 제1기는 일본이 패전한 1945부터 한일기본조약이 조인된 1965년까지로 일본인의 한국인에 대한 관점은 매우 부정적 이었으며, 그것은 한반도에 사는 코리안 보다는 재일코리안에 대한 결과였다. 그리고 한국에 관해서는 무관심과 관심회피로 여겨졌다. 제2기는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로부터 1984년까지의 약 20년 동안으로 이 시기의 한국은 일본인에게 있어서 정치적으로 관심은 고양되었지만, 매력은 없는 나라였다. 가정이나 이웃 사이에서 소곤거리는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 거기에 재일코리안 사회에서 되풀이된 남북한의 상호비방과 중상모략 등이 일본인에게는 이웃나라에 대한 무관심과 관심회피를 지속화 시켰다. 제3기는 1984년부터 1995년경에 해당된다. 이 시기는 한국에 대한 일본인의 관심을 문화적·오락적·대중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이때는 해외도향 자유화에 따른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수가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 수를 넘었다. 한일상호교류가 시작되어, 이문화로서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무서운 나라」, 「불쌍한 나라」에서 「보통 나라」, 「발전한 나라」로 인식해, 「이문화로서의 한국」으로 변화한 것이다.

일본인의 한국인에 대한 인식을 보면, 구스노키 조사에 의하면 일본인 학생의 여러 민족에 대한 호감도에서 1939년에는 5위를 차지했으나, 일본이 패전한 이후인 1949년에는 15위로 가장 비호감으로 나타났다. 그 당시 일본인이 한국인이란 말에서 연상한 이미지는 몇 년 전 일본 통치 아래에 있었던 한반도의 조선인에 대한 이미지라기보다 재일조선인에 대한 이미지였을 것으로 생각했다. 1949년 조사에서 한국인은 「불결하다」, 「문화적으로 저급하다」, 「교활하다」, 「일본을 업신여긴다」, 「일본을 증오한다」, 「추악하다」등의 이미지였다. 또한, 1960년대 한국인의 이미지로 와가쓰마와 요네야마 조사에 의하면, 「불결」, 「교활함」, 「비굴」, 「무례」 등으로 이 시기도 일본인이 한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1978년 쓰지무라 조사에서 「한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머리 속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김대중 사건(16.1%)」, 「남북대

립(13.8%)», 「최근의 급속한 경제 성장(13.6%)」등의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국가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1990년 같은 조사에서도 「일본이 침략해서 학대한 일(9%)», 「김치, 한국요리 등의 음식」과 「싫다」가 각각(8%)을 차지, 「경제 발전(6%)», 「서울올림픽(5%)」의 순서로 과거의 역사에 대한 이미지가 떠올랐고, 반한감정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⁶⁾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인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이 시대와 함께 변화해 오고 있지만, 그래도 부정적인 측면이 강했다.

본 조사에서 표2의 「한국인에 대한 인식」에 관해서 보면, 한류이전에는 「관심 없음」이 51.9%로 가장 많았던 것에 비해서, 한류이후에는 「긍정적」이 62.2%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관심 없었던 사람들이 한류이후 한국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매우긍정」도 한류이전의 3.5%에 비해 한류이후에는 8.3%로 2배 이상 많아졌고, 부정적인 인식도 한류이전과 비교해, 다소 적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의 정대균(1995)이 말하는 것과 같이 과거의 한국의 이미지는 부정적 아니면 무관심 이었던 것처럼 이 조사에서도 한류이전에는 관심 없음이 많았다. 그것이 한류이후에는 관심 없음에서 좋은 이미지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다음은 일본인이 한국인에 대해서 얼마나 친근감을 느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표2와 같이 「한국인의 친근감 정도」를 보면, 한류이전에는 「조금 친근감을 느낀다」가 40.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별로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가 33.8%로 많았다. 한류이후를 보면 「조금 친근감을 느낀다」가 55.1%로 가장 많았으며, 한류이전과 비교해 15%정도 늘었다. 다음으로 「친근감을 느낀다」가 많이 상승했으며, 한류이전과 비교해서는 10%이상 증가했다. 그리고 「별로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와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한류이전과 비교해 한류이후에는 대폭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한류이후에 일본인 80%이상 이 한국인에게 친근감을 느낀다고 볼 수 있다.

표2 한국인에 대한 인식 · 한국인의 친근감 정도

	한국인에 대한 인식					한국인의 친근감 정도			
	매우 긍정	긍정적	관심 없음	부정적	매우 부정	친근감을 느낀다	조금 친근감을 느낀다	별로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
한류이전	3.5%	37.1%	51.9%	4.9%	2.9%	15.1%	40.6%	33.8%	10.4%
한류이후	8.3%	62.2%	24.5%	4.0%	1.1%	25.8%	55.1%	13.4%	5.7%

6) 정대균(1999) 『일본인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강 pp.17-35.

표3 한국인인 이웃과의 관계

	주변에 한국인이 있다면 사이 좋게 지낼 것인가				
	사이 좋게 지냄	조금 사이 좋게 지냄	뒤편이라고 말할 수 없다	별로 사이 좋게 지내고 싶지 않다	사이 좋게 지내고 싶지 않다
한류이전	22.0%	28.7%	45.8%	3.1%	0.3%
한류이후	29.0%	36.0%	35.0%	0.0%	0.0%

다음은 한국인인 이웃과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주변에 한국인이 있다면 사이 좋게 지낼 것인가」에 관해서 표3과 같이 한류이전에는 「뒤편이라고 말할 수 없다」가 45.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조금 사이 좋게 지냄」, 「사이 좋게 지냄」 순이었다. 한류이후를 한류이전과 비교해 보면, 「조금 사이 좋게 지냄」, 「사이 좋게 지냄」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고, 「뒤편이라고 말할 수 없다」, 「별로 사이 좋게 지내고 싶지 않다」, 「사이 좋게 지내고 싶지 않다」가 적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해서 한류가 일본인에게 있어서 「한국인에 대한 인식」, 「한국인의 친근감 정도」, 「한국인인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가 있다.

(3) 한류와 한국의 역사·정치

근대 한일관계를 간단히 말하자면, 한국은 1910년 한일병합에서 1945년 일본이 패전하기까지 일본 식민지 시대를 거쳤다. 국가의 주권과 민족의 문화를 빼앗기고, 생명과 재산을 침해당하며, 민족의 긍지와 개인의 자존심을 짓밟히는 등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한일관계는 당연히 우호적이지 못했다. 그 후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를 통하여 과거의 상처를 씻고 새로운 협력관계를 개척해 나가기로 협의 하였으나, 양국 간은 표면적인 우호관계를 내세울 뿐 끊임없는 갈등이 잠재되어 있다.

그러면, 한류가 정치와 역사적인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우선 표4의 「한국과 일본 관계」를 보면 한류이전에는 「뒤편이라고 말할 수 없다」가 33.3%로 가장 많았고, 「별로 양호하지 않다」가 30.4%로 다음으로 많았다. 즉, 한국과 일본관계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류이후를 보면, 한국과 일본 관계에서 「조금 양호」가 거의 50%로 가장 많았고 한류이전과 비교해보면 수치가 급격히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다. 또, 「별로 양호 하지 않다」는 한류이전과 비교해서 상당히 하락한 것으로, 한류이후에 한국과 일본 관계가 좋아졌음을 알 수 있다.

표4 한국과 일본 관계 · 한국 역사에 관한 관심도

	한국과 일본 관계					한국 역사에 관한 관심도				
	양호	조금 양호	뭐라고 말할 수 없다	별로 양호하지 않다	양호하지 않다	매우 흥미 있다	흥미 있다	뭐라고 말할 수 없다	흥미 없다	전혀 흥미 없다
한류이전	3.3%	24.4%	33.3%	30.4%	8.5%	4.8%	26.3%	34.3%	23.2%	11.4%
한류이후	9.6%	48.5%	24.6%	14.7%	2.6%	7.6%	42.4%	27.8%	16.3%	5.9%

「한국 역사에 관한 관심도」는 표4와 같이 한류이전에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가 34.3%로 가장 많았고, 「흥미 있다」가 26.3%, 「흥미 없다」가 23.2%로 거의 비슷하게 다음으로 많았다. 그러나 한류이후를 보면 「흥미 있다」가 42.4%로 가장 많았으며. 한류이전과 비교 했을 때 「뭐라고 말할 수 없다」, 「흥미 없다」, 「전혀 흥미 없다」는 대폭 줄은 반면에, 「흥미 있다」, 「매우 흥미 있다」는 많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류로 인해서 일본인들의 한국역사에도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은 일본과 다소 정치적 마찰이 있는 「일본 독도 소유권 주장」에 관해서 보기로 한다(표5).

표5 일본 독도 소유권 주장 ·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일본 독도 소유권 주장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매우찬성	찬성	뭐라고 말할 수 없다	반대	절대반대	역사의 왜곡이 있다	부분적 역사의 왜곡이 있다	역사의 왜곡은 없다	절대 역사의 왜곡은 없다
한류이전	11.1%	30.1%	55.6%	1.8%	1.4%	11.3%	40.1%	29.4%	19.1%
한류이후	11.5%	30.2%	54.0%	2.9%	1.4%	12.8%	45.6%	25.3%	16.4%

「일본 독도 소유권 주장」에서 「뭐라고 말할 수 없다」가 약 55%로 가장 많았고, 「찬성」이 약 30%로 다음으로 많았으며, 「매우찬성」이 11%정도 차지했다. 한류이전과 한류이후를 비교해 본 결과 큰 변화는 볼 수 없었다.

표5의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관해서 보면, 한류이전에는 「부분적 역사의 왜곡이 있다」가 약4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역사의 왜곡은 없다」가 약 30%, 「절대 역사의 왜곡은 없다」가 거의 20%, 「역사의 왜곡이 있다」순으로 나타났다. 한류이후를 살펴보면, 「부분적 역사의 왜곡이 있다」가 약

45%로 가장 많았으며, 한류이전과 비교해서 순위는 변화가 없으며, 수치는 약간의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한류가 일본 독도 소유권 주장 및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4) 한류와 한국음식

한류와 일본인의 한국음식 섭취도와 선호도에 관해서 한류이전과 한류이후로 나눠서 보고자 한다.

우선 「한국음식 섭취도」에 관해서 표6을 보면 한류이전에는 「가끔 먹는다」가 40%로 가장 많았으며, 「거의 먹지 않는다」가 37.2%로 다음으로 많았다. 한국음식을 먹는다와 먹지 않는다고 나눠서 보면 거의 50%씩 임을 알 수 있다. 한류이후를 보면 「가끔 먹는다」가 47.6%로 가장 많았으며, 「거의 먹지 않는다」가 30.9%로 다음으로 많았다. 한류이전과 비교해 보면, 한국음식을 먹는다는 사람들이 약60%로 10%가량 늘고, 한국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약40%로 한류이전과 비교해 10%정도 줄었다.

표6 한국음식 섭취도 · 한국김치 선호도

	한국음식 섭취도				한국김치 선호도			
	잘 먹는다	가끔 먹는다	거의 먹지 않는다	전혀 먹지 않는다	매우 좋아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매우 싫어한다
한류이전	9.3%	40.0%	37.2%	13.4%	29.3%	51.4%	16.4%	2.9%
한류이후	11.8%	47.6%	30.9%	9.7%	30.9%	53.2%	13.1%	2.8%

다음은 표6의 「한국김치 선호도」를 보면, 한류이전에는 「좋아한다」가 51.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매우 좋아한다」가 29.3%로 많았다. 약80%의 일본인이 김치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한류이후와 비교해보면 좋아한다가 아주 조금 늘고 싫어한다가 조금 줄었을 뿐 큰 변화는 없었다. 김치는 일본에서 일반마트나 편의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화 되어있기 때문에 한류의 영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예상된다.

(5) 한류와 제일코리아

한류와 제일코리아의 관계를 보기 전에 우선 제일코리아의 관해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형성과정을 보면 1910년 한일합병에 의해 일본기업이 조선노동자에게 눈을 돌려 모집하기 시작해, 1920년에 조선총독부가 낸 산업증식계획에 의해서 조선농촌사회로부터 유출인구는 급증했다. 즉, 1926년 산미증식계획이 실시되기 시작해, 정부에의 납부량이 갑자기 증가해 조선 농가에서 살기 어렵

게 되어, 일본으로 도항하는 사람이 많았다. 1931년 만주사변을 거쳐, 1938년 국가총동원법 및 1939년 국민징용령으로 이때부터 강제연행이 실행되었다. 1945년 일본 패전으로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대로 일본에 남아서 살게 된 사람들이 많다. 그들과 그 자손을 재일코리안이라 칭하며, 현재 60만이 넘는 재일코리안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일본에서 1세기가 넘도록 생활하고 있으며, 일본에도 속하지 못하고, 일본에서 수많은 차별과 고통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다. 앞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일본이 패전한 이후, 일본인의 재일코리안에 대한 이미지는 「불결하다, 「추악하다, 「문화적으로 저급하다, 등의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재일코리안들은 수많은 차별과 고통 속에서 생활을 해 왔다. 이러한 차별을 피하기 위해서 일본인 행세도 하며, 일본국적으로 귀화하는 사람들도 생겼고, 오히려 차별에 강하게 반발하고 저항하며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다음은 한류로 인한 일본인의 재일코리안에 대한 인식을 보기 위해서 전 절(2)의 한류와 한국인에서 한국인과 관련된 같은 항목 「재일코리안에 대한 인식, 「재일코리안의 친근감 정도, 「재일코리안인 이웃과의 관계」에 「재일코리안 고용문제」를 추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표7의 「재일코리안에 대한 인식」에 관해서 보면, 한류이전에는 「관심 없음」이 46.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긍정적」이 42.8%로 많았다. 한류이후를 보면 「긍정적」이 55.7%로 가장 많았고, 한류이전과 비교해 「관심 없음」과 「부정적」이 줄은 반면에 「긍정적」과 「매우긍정」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즉 한류로 인해서 재일코리안에 관심이 없었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변했음을 알 수가 있다.

표7 재일코리안에 대한 인식 · 재일코리안의 친근감 정도

	재일코리안에 대한 인식					재일코리안의 친근감 정도			
	매우 긍정	긍정적	관심 없음	부정적	매우 부정	친근감을 느낀다	조금 친근감을 느낀다	별로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
한류이전	5.5%	42.8%	46.1%	4.1%	1.5%	17.3%	41.2%	31.6%	9.9%
한류이후	8.5%	55.7%	31.4%	3.0%	1.5%	22.9%	60.4%	12.5%	4.2%

「재일코리안의 친근감 정도」를 살펴보면(표7), 「조금 친근감을 느낀다」가 41.2%로 가장 많았으며, 「별로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가 31.6%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한류이후를 보면, 「조금 친근감을 느낀다」가 60.4%로 한류이전과 비교해 20%정도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친근감을 느낀다」가 22.9%

로 많았으며, 한류이전과 비교해 친근감을 느끼는 쪽으로 변화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일코리안인 이웃과의 관계는 표8과 같이, 「주변에 재일코리안이 있다면 사이 좋게 지낼 것인가」에서 한류이전에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가 43.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조금 사이 좋게 지냄」이 30.9%로 많았다. 한류이후를 보면 「조금 사이 좋게 지냄」이 36.0%로 가장 많았고, 한류이전과 비교해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없다」가 10%정도 줄은 반면에 「조금 사이 좋게 지냄」과 「사이 좋게 지냄」이 늘어났음을 알 수가 있다.

표8 재일코리안인 이웃과의 관계 · 재일코리안 고용문제

	주변에 재일코리안이 있다면 사이 좋게 지낼 것인가					재일코리안 고용문제				
	사이 좋게 지냄	조금 사이 좋 게 지냄	뭐라고 말할 수 없다	별로 사이 좋 게 지 내 고 싶 지 않 다	사이 좋 게 지 내 고 싶 지 않 다	적 극 적 고 용	가 능 한 고 용	뭐 라 고 말 할 수 없 다	그 다 지 고 용 안 함	절 대 로 고 용 안 함
한류이전	22.7 %	30.9%	43.6%	2.5%	0.4%	12.4 %	31.2%	53.0%	3.5%	0.0%
한류이후	29.0 %	36.0%	33.2%	1.4%	0.4%	13.9 %	37.8%	46.3%	2.0%	0.0%

「재일코리안 고용문제」를 보면(표8), 한류이전에 「뭐라고 말할 수 없다」가 5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능한 고용」이 31.2%로 많았다. 한류이후를 보면 한류이전과 마찬가지로 「뭐라고 말할 수 없다」가 46.3%로 가장 많았고, 「가능한 고용」이 37.8%로 다음을 차지했다. 한류이전과 비교해 전자가 약간 줄었고, 후자가 약간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한류로 인해서 일본인의 재일코리안에 관한 인식이 더 긍정적으로 변했고, 더 친근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재일코리안인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더 긍정적으로 변했으며, 그 이미지 변화로 인해서 재일코리안의 고용 문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류로 인해서 한국인과 재일코리안,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이 호전되고, 한일관계가 많이 양호해졌음을 알 수가 있다. 하지만,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독도문제 등의 역사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즉, 개인적인 민간외교에서는 한일관계가 양호해 졌지만, 정치·역사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한류로 인한 관서지방 일본인의 한국인과 재일코리안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고찰해 본 결과, 한류가 일본인에 있어서 한국인에 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 시켰으며, 한국인에 대해 더욱더 친근감을 느끼게 하였다.

또한, 한류가 일본식민지 이후 1세기가 넘도록 일본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생활하고 있는 재일코리안에 대한 인식도 무관심에서 더욱 긍정적인 면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친근감을 느끼지 않았던 일본인들도 친근감을 느끼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일관계 및 한국역사에 관한 관심도를 본 결과, 한류이후 한일관계가 많이 양호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그리고 한류로 인하여 한국역사에 관한 관심도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일 간의 민감한 정치적 문제인 일본 독도 소유권 문제의 일본입장에 있어서는 한류이전과 한류이후가 전혀 변화가 없다. 또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있어서도 한류이전과 한류이후가 거의 변화가 없다.

한류와 한국음식에 관해서 본 결과, 한국음식의 섭취에 있어서는 한류이후에 더 많이 섭취되었다. 그러나 김치 선호도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김치는 한류이전부터 일본의 일반마트 뿐만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일본에서 보편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한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고 생각되어진다.

즉, 한류는 일본인들에게 한국·한국인·재일코리안 대한 인식의 변화나 한국문화에 관심의 동기를 부여하고, 한일관계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나, 정치적인 문제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 논문은 우선 일본인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관서지방 일본인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이 논문을 토대로 다음 연구과제에 있어서는 한류로 인한 일본인의 인식변화에 그치지 않고 재일코리안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실시해, 한류의 영향으로 인해서 실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参考文献】

- 김준숙·김광태(2005)「일본 한류를 통한 한국인 이미지 변화의 양상」, 인문과학연구 10, 카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23-48.
- 신원선(2005) 「일본의 한류 열풍 주도 드라마에 관한 연구」,한민족문화연구17, pp.211-234.
- 손진원(2004) 「일본에서의 한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연구」,일본연구 12, pp.34-52.
- 이은숙(2002)「중국에서의 한류열풍 고찰」, 문학과 영상, pp.31-59.
- 정대균(1999) 『일본인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강 pp.17-35.
- 정승훈(2003)「한류를 이용한 제주 관광 활성화 방안」, 관광경영연구7-3, pp.313-336.
- 장양례·박정옥 (2004) 「한류가 한국관광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광경영연구 8-1, pp.319-336.
- 채예병(2006)「한류가 한국관광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관광정책학연구 12-1, pp.63-77.
- 허중욱(2006) 「한류 문화관광객의 소비지출구조에 관한 연구-삼척시 방문 일본인 관광객 사례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20-2, pp.319-334.
- 히라타유키에(2005), 『한국을 소비하는 일본: 한류, 여성, 드라마』. 책세상 158p.
- 호사카유지(2005)「일본에서의 한류 붐 고찰」, 계명대학교 국제학논총 10, pp.49-59.

要 旨

本稿は韓流による日本人の、韓国人と在日コリアンに対する認識の変化を考察したものである。今までの韓流についての研究は多方面から研究されてきた。しかし、韓流が起これられている日本社会で生活している在日コリアンに関する研究はほとんどみられなかった。本稿では韓流による日本人の認識を韓国人だけではなく在日コリアンに対してもみたものである。その結果、韓流が日本人において韓国人の認識を肯定的に変化させ、韓国人に対してもっと親しみを感じさせた。

また、韓流が日本の植民地以後から1世紀が経ちながら、日本でいろいろ差別を受けながら生活している在日コリアンに対する認識も、無関心から肯定的に受け入れられることになり、また、親しみを感じてなかった日本人にも親しみを感じる方向に変化している。

韓日関係および韓国歴史についての関心度を見た結果、韓流以後に韓日関係が大分良くなったことがわかった。そして韓流により韓国歴史に関する関心が増えていることがわかった。しかし、韓日間の敏感な政治的な問題である日本独島所有権問題の日本立場においては、韓流以前と韓流以後にぜんぜん変化がなかった。そして、日本歴史教科書の歪曲問題においても韓流以前と韓流以後にほとんど変化がなかった。

韓流と韓国の食べ物との関係を見た結果、韓国の食べ物の摂取においては、韓流以前に比べ、韓流以後にもっと摂取された。一方、キムチの好みにおいてはあまり変化がなかった。最近、キムチを家で作られる家庭もあるので、韓流以前から一般的に摂取された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

以上のように、韓流は日本人に韓国・韓国人・在日コリアンに対する認識の変化や韓国文化への関心のきっかけをもたらして、韓日関係もある程度肯定的な変化させたが、政治的な問題までは影響を及んでなかった。

キーワード：韓流、韓国、日本人、韓国人、在日コリアン、認識、韓日関係

투 고 : 2007.11.30

1차 심사 : 2007.12.08

2차 심사 : 2007.12.29

住 所 : (136-720) 서울시 성북구 길음1동 삼성래미안 3차 606동 1202호

電 話 : 010-9476-3947

e-mail : hhk5500@daum.net